

2014년 11월 13일 공보 2014-11-19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4년 11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 세계경제 성장률 | | | | | |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 | | | | |
|------------------|------------|--------|------|------|--------|-----|-----------------------------------|-----------|-------|-------|-------|
| | (전기비연율, %) | 13.2/4 | 3/4 | 4/4 | 14.1/4 | 2/4 | 3/4 | (기말기준, %) | 14.8월 | 9월 | 10월 |
| 미국 | 1.8 | 4.5 | 3.5 | -2.1 | 4.6 | 3.5 | 미국 | 2.34 | 2.49 | 2.34 | 2.37 |
| 유로지역 | 1.2 | 0.5 | 1.2 | 0.9 | 0.1 | .. | 독일 | 0.89 | 0.95 | 0.84 | 0.81 |
| 일본 | 3.4 | 1.8 | -0.5 | 6.0 | -7.1 | .. | 영국 | 2.37 | 2.43 | 2.25 | 2.19 |
| 중국 ¹⁾ | 7.5 | 7.8 | 7.7 | 7.4 | 7.5 | 7.3 | 브라질 | 11.20 | 12.31 | 12.07 | 12.90 |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 | 2012 | 2013 | 13.4/4 | 14.1/4 | 2/4 | 3/4 | 14.7월 | 8월 | 9월 | 10월 |
|--|---------|---------|---------|---------|---------|---------|---------|---------|---------|---------|
| GDP 성장률 | 2.3 | 3.0 | 3.7 | 3.9 | 3.5 | 3.2 | - | - | - | - |
| GDP 민간소비 | 1.9 | 2.0 | 2.2 | 2.5 | 1.5 | 1.6 | - | - | - | - |
| 소매판매 (S.A, 전기비) | 2.4 | 0.8 | 1.2 | 2.5 | 0.7 | 1.4 | 0.5 | 2.3 | 1.6 | .. |
| GDP 설비투자 | 0.1 | -1.5 | 10.9 | 7.3 | 7.7 | 3.9 | - | - | - | - |
| 설비투자지수 (S.A, 전기비) | -2.8 | -1.3 | 10.4 | 5.9 | 6.2 | 1.4 | 2.9 | -9.9 | 12.7 | .. |
| GDP 건설투자 | -3.9 | 6.7 | 5.4 | 4.3 | 0.2 | 3.0 | - | - | - | - |
| 건설기성액 (S.A, 전기비) | -5.0 | 10.1 | 9.7 | 6.5 | 0.1 | -1.9 | -0.9 | -0.9 | -3.9 | .. |
| 수출(통관) (일평균, 억달러) | -1.3 | 2.1 | 4.7 | 1.7 | 3.2 | 3.9 | 5.2 | -0.4 | 6.9 | 2.5 |
| 제조업 생산 (S.A, 전기비) | 1.4 | 0.3 | 1.8 | 0.6 | 0.3 | 1.2 | 4.1 | -2.7 | 2.0 | .. |
| 서비스업 생산 | 1.6 | 1.4 | 2.1 | 1.9 | 1.4 | 2.5 | 2.7 | 2.0 | 2.8 | .. |
| 취업자수 증감 ¹⁾ (공공부문 ²⁾ 제외) | 436.5 | 385.7 | 541.4 | 729.4 | 463.7 | 516.5 | 505.4 | 593.5 | 450.9 | 405.9 |
| | (436.5) | (371.4) | (491.6) | (703.5) | (461.8) | (527.3) | (514.7) | (603.5) | (464.3) | (457.4)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가]

-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1%에서 1.2%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9%에서 1.8%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 | 14.6월 | 7월 | 8월 | 9월 | (전년동월대비, %) 10월 |
|------------------|----------------|----------------|-----------------|----------------|--------------------|
| 소비자물가 (전월비) | 1.7 (-0.1) | 1.6 (0.1) | 1.4 (0.2) | 1.1 (-0.1) | 1.2 (-0.3) |
| ▪ 농축수산물 (농산물) | -1.0 (-8.9) | -2.2 (-9.3) | -4.8 (-12.6) | -3.0 (-9.4) | -1.9 (-7.7) |
| ▪ 공업제품 (석유류) | 1.9 (-1.4) | 1.9 (-3.0) | 2.1 (-4.7) | 0.9 (-5.7) | 0.6 (-6.2) |
| ▪ 서비스 (석유류제외) | (2.6) | (2.9) | (3.5) | (2.2) | (1.9) |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 1.6 | 1.7 | 1.7 | 1.7 | 1.7 |
| | 2.1 | 2.2 | 2.4 | 1.9 | 1.8 |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주택가격상승률

| | 14.6월 | 7월 | 8월 | 9월 | (전월대비, %) 10월 |
|-----------------------------|---------------|--------------|--------------|--------------|------------------|
| 주택 매매가격 | 0.1 | 0.1 | 0.1 | 0.3 | 0.3 |
| ▪ 수도권 ¹⁾ (서울) | 0.0 (-0.1) | 0.0 (0.0) | 0.1 (0.0) | 0.3 (0.2) | 0.3 (0.2) |
| ▪ 광역시 ²⁾ | 0.2 | 0.2 | 0.2 | 0.3 | 0.4 |
| ▪ 지방 ³⁾ | 0.1 | 0.2 | 0.2 | 0.2 | 0.3 |
| 주택 전세가격 | 0.2 | 0.2 | 0.2 | 0.3 | 0.3 |
| ▪ 수도권 ¹⁾ (서울) | 0.2 (-0.1) | 0.2 (0.1) | 0.3 (0.3) | 0.4 (0.4) | 0.4 (0.4) |
| ▪ 광역시 ²⁾ | 0.2 | 0.2 | 0.2 | 0.3 | 0.3 |
| ▪ 지방 ³⁾ | 0.1 | 0.2 | 0.2 | 0.2 | 0.2 |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각각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금리, 주가 및 환율¹⁾

| | 14.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12일 |
|--------------|-------|-------|-------|-------|-------|--------|
| CD(91일)금리(%) | 2.65 | 2.65 | 2.40 | 2.35 | 2.14 | 2.14 |
| 국고채(3년)금리(%) | 2.68 | 2.52 | 2.51 | 2.30 | 2.14 | 2.20 |
| KOSPI | 2,002 | 2,076 | 2,069 | 2,020 | 1,964 | 1,967 |
| 원/달러 환율 | 1,012 | 1,028 | 1,014 | 1,055 | 1,069 | 1,096 |

주: 1) 기말기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